

韓國의 産業構造

林 鍾 哲

우리나라 産業構造 變化는 公업발전을 基軸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1950년대에는 消費財 産業을 중심으로 수입대체적 公업화가 진전되었고 1960년대에는 자본재 및 중간재수입에 의해 完製品輸入을 代替하는 輸入代替的 工業化가 중화학공업분야에서 진전되고 1974년 이후에는 1960년대까지 건설된 수입대체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전환되는 한편 철강 및 석유 화학공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重化學工業化가 진행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는 尖端技術産業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公업화진전에 따라 1차산업>서비스산업>2차산업이라는 後進的 産業構造는 1973년을 고비로 1차산업<2차산업<서비스산업이라는 先進的 構造로 탈바꿈하였고 1977년부터는 중화학공업 비중이 경공업용 앞서게 되었으며 호프만比率도 1953년에는 1:4.7이던 것이 1962년에는 1:3.0으로 公업화 제 2단계로, 다시 1974년에는 1:1.4로 제 3 단계로 진입하는 構造變化를 하였다.

1. 産業政策의 展開過程

1.1. 挫折된 近代化努力(1876~1910年)

紳士遊覽團이 西洋文物을 시찰한 것 등을 계기로 농업개량, 광공업개발, 도로·항만시설 확충 등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近代産業技術을 도입하고 資本制工場을 건설하며 株式會社 制度를 창설할 필요성이 力說되고 建議가 잇달으면서 정부는 적극적인 제도개혁, 공장건설에 나섰다. 즉 1883년에는 博文局을 창설하여 日本에서 印刷機械를 수입하여 政府刊行物을 인쇄케 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漢城旬報를 인쇄·발행케 하였고 機器局을 설치하여 兵器工場인 機器廠을 건설, 小銃을 제작케 하였으며 또 典閣局을 설치하여 造幣工場을 건설, 독일에서 鑄錢機械를 수입하고 技術者를 초빙하여 鑄貨를 주조·발행하였다.

1885년에는 織造局을 설치하여 그 밑에 模範織造工場을 건설하고 서양식 직조기계를 수입하고 中國人기술자를 초빙하여 기술지도케 하여 국내기술자 양성에도 주력하였고 1887년에는 造紙局을 설치하고 일본기계를 수입하여 製紙工場을 건설하였으며, 礦務局도 창설하여 美國鑛山技術者를 초빙, 전국광산을 답사조사케 하고 또 미국에서 探鑛機械를 수입하여 채광을 시작하는 한편 민간인에게도 광산회사 설립, 서구식 채광법에 의한 광산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종용하였다. 또 捲烟局도 설치하여 담배와 술을 제조하였다.

이같은 정부의 출선수법과 권고, 그리고 외국의 經濟的 侵蝕에 대한 民族的 警覺心 등이 합하여 민간부문에서도 資本家的 工業建設 등 적극적인 近代化運動이 전개되었다. 즉 1882년에 俞吉濬이 株式發行 및 出資, 社長選任, 株主總會 등에 관한 全文 25條인 會社規則을 소개하고 이듬해 漢城旬報에 ‘會社說’을 실어 株式會社制度 導入이 긴요함을 강조한 데 자극되어 1883년에 평양에 大同商會, 서울에 長通會社, 仁川에 太平商會, 釜山에 海產會社 등 商社, 公司, 會社 등의 명칭을 갖는 새로운 企業組織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공업부문에서는 1897년에 大韓織造工場을 비롯하여 근대적 방직공업 건설이 시도되었고 1902년에는 러시아 기술자를 초빙하여 수출용 沙器를 제조하는 사기공장이 건설되었고 1903년에는 日人과 합작한 담배공장이 세워졌다. 鑛業部門에서도 1900년에 海西鐵鑛會社 등이 설립되었고, 輸送部門에서는 1897년에 京仁間陸運을 담당하는 馬車會社, 1898년에 釜下鐵道, 1900년에 大韓協同郵船會社 등이 설립되고 에너지部門에서도 1903년에 漢城電氣株式會社가 설립되었다. 또 金融部門에서도 1896년에 朝鮮銀行이 설립되고 이어 漢城銀行, 韓一銀行 등의 설립이 잇달았다.

그러나 政府企業이나 民間企業이 모두 자본부족, 산업기술 및 경영기술부족, 外勢壓迫 그 중에서도 日本의 制度的·暴力的 彈壓 등으로 인하여 특히 志士型企業은 그 命脈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事業家型企業도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1911년 현재 10명 이상의 종업원을 둔 動力使用工場은 모두 1270개였는데 그 중 民族企業은 요업 20, 정미업 15, 철공업 13, 직물 10, 제지 9, 담배제조 8, 기타 제분, 인쇄, 피혁 등 부문에 모두 86개뿐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¹⁾

1.2. 收奪從屬을 위한 變貌(1910~45年)

原料供給基地로서 또 製品販賣市場으로서 한국경제를 절실히 필요로 하였던 日本은 한국에 대한 지배권이 확보되면서 우선 民族經濟의 생명력을 고갈시키기 위한 경제정책을 전개하고 뒤이어 그 人的, 物的 資源을 개발·수탈하되 이를 日本經濟의 불가결한 일부로서 편입·종속시키는 정책을 강구하였다. 1905년에 단행된 光武貨幣改革은 韓國商業資本을 말살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1909~17년간에 수행된 土地調査事業은 비단 土地資本收奪, 民族土地資本抹殺 뿐만 아니라 그 성격을 買辦的인 것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1911~20년간 지속된 會社命은 그나마 침탈에서 벗어난 민족자본이 근대적 산업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15년에 걸친 조직적 말살정책으로 인하여 民族資本은 그 명맥조차 유지하기 어려웠으니 會社命이 철폐되어 회사설립이 자유로워진 1921년 현재 民族會社는 123개,

(1) 이상의 대목은 거의 趙璣濬(1973)에 의거하였다.

15.5%, 자본금 면에서는 5743만 6천円, 4.3%이던 것이 1929년에는 비록 회사수에서는 362社 19.3%로 늘었지만 자본금총액은 오히려 4251만 3천円, 1.3%로 줄어들었다.

이상과 같은 民族資本抹殺政策이 성공한 데 뒤이어 日本은 농업부문에서는 1920년부터 시작된 産米増殖計劃과 南綿北羊政策, 공업부문에서는 1920년대 후반부터 일으킨 ‘朝鮮産業革命’과 1930년대 후반의 ‘大陸兵站基地論’ 등 공업화정책으로 人的, 物的 資源을 최대한으로 개발·수탈하는 한편 ‘円블록’정책으로 한국경제를 일본경제에 종속·편입시키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수탈을 위한 産業開發政策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예컨대 米作農業은 1910년에 134만 2천ha이던 재배면적이 1937년에는 162만 6천ha로 21.2% 증가하였고 耕種多樣化, 품종개량, 경지정리·개량, 재배기술 개선, 생산물보관·가공기술 개량, 施肥·病蟲害驅除法 개선 등으로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ha당 0.8석 미만에서 1.6석 이상으로 112% 증가하여 생산량도 1041만석에서 2680만석으로 158% 증가하였다.

제조업부문에서는 1920년대초 流域變更方式에 의한 대규모 발전이⁽²⁾ 가능해지면서 풍부한 電力과 지하자원을 이용한 重化學工業建設이 북한에서 시작되어 日室, 日産 등 新興軍需財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1930년대 들어서면서는 軍部の 강력한 중용 아래 三井, 三炭 등 일본을 대표하는 大資本家들도 진출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11년에 4350만円이던 工産額은 1943년에는 20억 5천만円으로 커졌고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³⁾ 5억 5810만円으로 13배 가량 증가하여 全産業生産額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6%에서 37.1%로, 또 중화학공업생산액비중은 54.7%로 커졌다.

해방후 農業部門에서는 일부 農民이 줄모내기(正條植)를 倭式農法이라고 하여 거부한 일이 있기는 하였지만 일본이 도입한 近代農法은 대체로 그대로 定着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營農科學化와 농업구조근대화가 계속 추진되었다. 이에 반하여 공업부문에서는 몇 가지 결정적인 이유로 日帝收奪에 대한 유일한 補償이었던 공업생산시설이 한국경제발전에 별다른 기여를 못하게 되었다. 첫번째 요인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파괴였으니, 商工部 자료에 따르면 공업시설은 건물 44%, 기계설비 42%가 파괴되었다.⁽⁴⁾ 둘째, 파괴를 면한 공업생산시설도 제대로 가동을 못했으니 1943년 현재 24.7%란 낮은 機械工業自給率〔朝鮮銀行調査部

(2) 1911~14년간에 행해진 제 1회 發電水力調査에서 5.7만kw로 계산되었던 理論發電力이 이같은 발전기술혁신으로 인하여 1922~25년에 있었던 제 2회 발전수력조사에서는 225만kw로 밝혀졌다.

(3) 韓國銀行(1977, p. 187). 도매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한 것.

(4) 黃炳峻(1966, p. 71). 공업시설피해액은 1억 1526만 1502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1948, p. II-99)]이 말해주듯이 歸屬財産인 공업생산시설은 대부분 日製였으므로 해방으로 인한 韓日經濟關係 두절은 낮은 第1次生産財工業自給率과 상승작용을 하여 기계·부품 置換을 어렵게 하여⁽⁵⁾ 격심한 效率低下와 매이른 스크랩화를 가져왔다. 셋째로 強占 35년을 통하여 민족자본이 조직적으로 말살된 데 더하여 한국인은 경영, 행정, 교육, 과학 등 모든 기술분야에서 의도적으로 철저히 배제되었다. 따라서 호프만(Hoffman)비율을 기준할 때 공업과 제 2 단계를 종료해가고 있던 한국공업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人力이 국민경제적으로나 개별 기업차원에서 모두 크게 부족했다. 그 결과 1940년 현재 공업자산중 94%를 차지했었고 해방 당시는 그 비중이 더 커졌을 것이 분명한⁽⁶⁾ 歸屬財産을 불하받은 企業家中 이를 기반으로 지금까지도 공장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일을 넘을까 말까 할 정도로 經營技術이 부족하였다. 日帝愚民化政策이 낳은 경영기술인력부족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파괴가 없었더라도 工業近代化 기틀노릇을 즉각적으로 하게끔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1.3. 美國援助와 消費財工業建設(1945~61年)

解放과 南北分斷은 남한의 식량자원과 소비재공업, 북한의 지하자원, 전력과 중화학공업이라는 地域間特化로 인하여 고도의 補完性을 가진, 그러면서도 심각한 對日技術從屬으로 인하여 生存能力이 약한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이에 더하여 1950~53년간 계속된 한국전쟁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공업생산시설, 도로·교량·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수리관계시설 등 농업용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혹심한 피해를 입혔다. 1953년도 1인당 GNP는 67달러였고 1인당 工産額은 5.1달러, 제조업부가가치구성비는 7.7%라는 낮은 생산력기반에서 국민생존을 보장하고 생산력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자금은 1억 1900만달러라는 국내저축으로는 마련할 수 없었고⁽⁷⁾ 자연히 海外貯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占領政策과 관련하여 1945~49년간에 5억 210만달러가 공여된 救恤의 GARIOA원조에 이어 1950~53년간에도 ECA & SEC원조 1억 920만달러, SUN, SKO 등 CRİK원조 4억 5770만달러도 본질적으로는 생활수준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또 생산력수준회복·강화에 主

(5) 1944년 현재 8476명이던 기술자중 한국인은 1632명으로 19%에 불과했고 금속공업(11%), 화학공업 등(12%)은 더욱 적었다 [朝鮮銀行調查部(1948, p. I-100)].

(6) 1941년 3월에 朝鮮東亞貿易株式會社(자본금 5백만圓) 등 한국에서 신규로 설립된 것, 1941년 6월 日本의 東海電極株式會社가 鎮南浦工場을 건설키로 한 것이나 8월 旭硝子株式會社가 淸津工場 건설을 결정한 것 등 日本으로부터 신규진출한 것, 大日本理化學研究所大田工場 건설에서 보듯 태평양전쟁중 폭격을 피하여 疎開移轉한 것 등 여러 갈래로 대규모의 일본자본 진출이 1941년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것이다 [全國經濟調查機關聯合會朝鮮支部(1942) 참고].

(7) ICA원조자금으로 1955년에 착공된 생산능력 尿素 연8.5만톤 규모인 忠肥 총건설비가 外貨 3475만달러, 원貨 2억 7500만원, 합계 대략 4천만달러였고, UNKRA자금으로 1954년에 건설된 연산 20만톤 규모인 聞慶시멘트공장 건설비가 525만달러였으므로 1억 1900만달러란 국내저축규모가 얼마나 영세한 것인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眼點을 둔 UNKRA원조(1951~60년)는 총규모가 1억 2210만달러에 불과하였고 집중적으로 제공된 1953~57년간에는 연평균규모는 2191만달러에 지나지 않았으므로(GNP대비 1.5%) 빈곤하다고는 하지만 1953~57년간의 GNP 규모가 평균 14억 6300만달러이었던 한국경제에 대하여 의미있는 기여를 하기는 어려웠다.

본격적인 경제재건을 위한 원조는 네이산플랜(Nathan Plan)을 계기로 추진되었다. 네이산 조사단보고에 근거하여 UNKRA 16개 會員國共同出資로 초년도 15%, 최종연도 5%, 기간중 평균 8.8% 성장을 내용으로 하는 네이산플랜이 李承晩 대통령의 反計劃的 偏見 탓으로 한국정부에 의하여 거부되자 [Adelman (1969, pp.15~16)] 美國을 제외한 15개 UNKRA 회원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에서 손을 떼었고 미국만이 韓美相互防衛條約義務에 따라 AID원조의 대폭증액과 PL 480號에 의한 追加的 剩餘農產物援助로 國防力支持 및 産業建設에 필요한 자금을 책임지게 되었다. UNKRA에 의한 집단원조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主授援國인 미국의 국내경제사정과 世界戰略이 원조규모와 성격을 좌우했을 것임은 당시의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體制하에서는 분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네이산플랜 거부로 인하여 미국이 단독으로 원조하게 됨으로써 원조자금에 기초한 한국산업의 복구·재건은 결정적인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선 工業을 보면 韓美相互防衛條約에 따라 한국은 60만 人力을 제공하고 미국은 이들 60만 兵力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經費를 지원하게 되었는데, 國防費라는 해마다 되풀이해서 생기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耐久年限이 긴 資本財 특히 重化學工業施設援助는 적합하지 못했다. 耐久性이 전혀 없음으로 해서 해마다 遞增的인 규모로 수요되는 소비재를 제공하여야만 韓美 兩國은 매년 국방비를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1953~61년간에 제공된 미국원조총액중 80.5%를 점하였던 AID원조는 그 70%(非計劃援助)가 소비재 및 原資材이었고 나머지 30%(計劃援助)만이 이를 가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施設財로 구성되었다. PL 480號에 의한 剩餘農產物助援은 물론 모두 소비재와 원자재였다.

한편 이같은 소비재중심의 원조, 소비재산업중심의 工業化支援은 당시의 한국경제사정과 크게 괴리된 것은 아니었다. 1953~61년간에 있어 1인당 糶供給量은 평균 99.2kg으로 1990년의 131.0kg에 비하여 75.7%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었다.⁽⁸⁾ 1인당 GNP 또한 67~82달러이어서 자본의 懷妊期間이 긴 重化學工業建設은 생존을 위한 국민의 긴급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적합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1953년에 건설된 第一製糖을 비롯한 수많은 소

(8) 물론 이는 1인당 쌀국내공급량이 가장 많았던 1977년의 164.9kg에 비하면 60.2% 수준에 불과하다.

비재생산공장의 사례에서도 실증되었듯이 경공업을 꾸려나가기에 충분한 기술조차 없었다. 이에 더하여 企業家들 역시 장기적 안목을 결여하여 중화학공업 건설은 고사하고 소비재산업 건설조차 의면하여 소비재를 수입·판매하는 데만 전념하였다. 그리하여 公定換率이 달러당 180원하던 1953년 당시 소비재수입을 위해 배정된 政府保有弗은 경쟁입찰한 결과 800원까지 등귀한 반면 시설재수입을 위한 정부보유불 公賣時勢는 공정환율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니 일례로 大邱에 건설된 內外紡績工場의 기계수입을 위한 外資 2천만달러는 달러당 60원에 배정되었었다. 이같이 시설재구입을 한국기업인이 기피한 결과 이 기간중 집행된 AID 원조 17억 4160만달러중 非計劃援助는 12억 6180만달러로 72.4%였고 計劃援助는 4억 7990만달러로 27.6%에 불과하여 배정된 30% 몫도 消化하지 못하였다. 1953~61년간에 도입된 AID원조 총액은 17억 4160만달러에 달하였다.⁽⁹⁾

UNKRA원조와 AID원조가 비록 경공업중심이기는 하였지만 工業化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준 데 반하여 2억 260만달러가 공여된 PL 480號 및 기타에 의한 잉여농산물원조는 한국경제에 대하여 相反되는 두 가지 작용을 하였다. 우선 <表 1>에서 보듯이 전쟁이 한창 진행중이던 1952년도 식량공급은 1949년에 비하여 70% 수준을 간신히 넘는 정도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表 2>에서 보듯이 1946~55년간에는 총공급의 8.2%, 1956~61년간에는 17.5%를 차지하였던 미국측 잉여농산물원조는 한국국민의 식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1956~61년간에 총 2억 1730만달러로 그 기간중 농업생산액의 5.7%에 해당하는 농산물추가공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阻止效果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곡물총공급량의 17.5%를 차지한 잉여농산물투입으로 말미암은 農產物價格抑壓效果는 매우 커서 농가회생이 강요되었고, 특히 棉花栽培農은 美國原棉導入으로 인하여 거의 완전히 소멸되었다. 즉 1951년에 재배면적 14만 5100ha, 생산량 7.5만톤이던 면화재배

<表 1> 1人當 穀物國內供給量

(單位: kg, %)

	쌀		麥 類		콩		雜 穀		總 量	
	kg	%	kg	%	kg	%	kg	%	kg	%
1949	105.1	100	33.4	100	9.7	100	5.7	100	153.8	100
1952	65.1	61.9	28.5	85.3	6.8	70.1	7.6	133.3	108.1	70.3
1961	109.2	103.9	41.9	125.4	3.9	40.2	7.6	133.3	162.6	105.7

資料: 農協中央會(1965).

(9) 1953~61년간에 제공된 미국원조 총액은 21억 6250만달러로, AID원조가 17억 4160만달러로 80.5%, PL 480호 원조가 2억 260만달러로 9.4%, CRIK원조가 2억 1800만달러로 10.1%였고, GNP에 대한 비율은 14.2%였다. 가장 집중적으로 제공된 1955~58년간에는 연평균 3억 30만달러였으며 GNP 대비 18.8%에 달하였다. UNKRA원조까지 합하면 한국은 1953~61년에 총 22억 8230만달러를 받았으며, 이는 GNP 대비 15.0%이다.

〈表 2〉穀物供給構成

(單位: 톤)

	國內生産 (A)			導入糧穀 (B)		
	1946~55	1956~61	1946~61	1946~55	1956~61	1946~61
쌀	21,426,472	12,065,367	33,491,839	670,867	233,149	904,016
맥류	7,006,120	4,490,375	11,496,495	1,847,595	3,079,044	4,926,639
콩류	1,729,313	846,241	2,575,554	59,336	226,023	285,359
잡곡	1,002,884	453,496	1,456,380	218,089	235,183	453,272
計	31,164,789	17,855,479	49,020,268	2,795,887	3,773,399	6,569,286

	總供給 (C)			B/C(%)			B/A(%)		
	1946~55	1956~61	1946~61	1946~55	1956~61	1946~61	1946~55	1956~61	1946~61
쌀	22,097,339	12,298,516	34,395,855	3.04	1.90	2.63	3.13	1.93	2.70
맥류	8,853,715	7,569,419	16,423,134	20.87	40.68	30.00	26.37	68.57	42.85
콩류	1,788,649	1,072,264	2,860,913	3.32	21.08	9.97	3.43	26.71	11.08
잡곡	1,220,973	688,679	1,909,652	17.86	34.15	23.74	21.75	51.86	31.12
計	33,960,676	21,628,878	55,589,554	8.23	17.45	11.82	8.97	21.13	13.40

資料: 農協中央會(各年度).

는 1961년에는 4만 8600ha에 2만 7500톤 생산으로 줄어들고 1975년에는 7000ha에 6300톤, 그리고 1988년에는 642ha에 624톤으로 줄어든 것이다.

더구나 1인당 곡물생산량이 162.6kg으로 크게 증가한 1961년 이후에도 PL 480호 원조규모는 연평균 5930만달러로 1956~61년에 비하여 오히려 1.7배 이상 커졌는데 이로 말미암아 低農産物價格과 農村貧困 그리고 對美食糧依存이 심화되었다.

1.4. 外貨節約的 工業化(1962~73年)

공화당정부가 추진한 工業化政策은 國威宣揚의 誇示生産이 主가 되고 국민적 필요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從으로 한 것이었다. 이같은 誇示生産性向은 한편으로는 세계 제일 또는 동양 제일이라는 外形爲主의 工場建設로 나타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優先順位나 産業聯關을 무시한 重化學工業中心의 全面的 工業化와 가능한 최대한의 自給自足政策으로 나타났다. “되도록 민간인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는 自由企業의 원칙을 토대로 하되 基幹部門과 그 밖의 중요부문에 대하여서는 정부가 직접 관여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誘導政策을 쓰는 ‘지도받는 자본주의체제’를 지침으로 한다” [大統領秘書室(1975, p. 18)]는 體制原理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官主導的 性格은 생산과 분배, 유통 등 모든 면에서 정부가 일일이 지시하고 규제하는 國家干涉主義로 나타났다. 이 국가간섭주의는 富國強兵을 위주로 한 것이었고 국민적 필요에 대한 배려는 최소한도로 억제하였다는 점에서 國民厚生(general welfare)을

〈表 3〉 美國의 農產物援助(1956~61년)

(單位 : 千 달러)

	MSA 402條	PL 480號	合 計
쌀	—	27,100 (12.5)	27,100 (5.7)
보리	23,000 (8.9)	35,913 (16.5)	58,913 (12.4)
밀	53,482 (20.6)	80,770 (37.2)	134,252 (28.2)
옥수수	267 (0.1)	3,106 (1.4)	3,373 (0.7)
수수	—	2,730 (1.3)	2,730 (0.6)
콩	1,000 (0.4)	—	1,000 (0.2)
곡류小計	77,749 (30.0)	149,619 (68.9)	227,368 (47.7)
돼지고기동조립	—	8,288 (3.8)	8,288 (1.7)
분유·치즈	—	435 (0.2)	435 (0.1)
원당	5,500 (2.1)	—	5,500 (1.2)
곡류의식소小計	5,500 (2.1)	8,723 (4.0)	14,223 (3.0)
牛 脂	11,046 (4.3)	—	11,046 (2.3)
식용유지	—	554 (0.3)	554 (0.1)
식용유	—	870 (0.4)	870 (0.2)
지방류小計	11,046 (4.3)	1,424 (0.7)	12,470 (2.6)
原 綿	161,384 (62.2)	50,389 (23.2)	211,773 (44.4)
原 皮	2,950 (1.1)	—	2,950 (0.6)
엽 연 초	—	7,130 (3.3)	7,130 (1.5)
樹 脂	520 (0.2)	—	520 (0.1)
아 마 인	400 (0.2)	—	400 (0.1)
공업용원료小計	165,254 (63.7)	57,519 (26.5)	222,773 (46.7)
總 計	(100.0) 259,549 (55.4) ¹⁾	(100.0) 217,285 (45.6) ¹⁾	476,834(100.0)

資料 : 洪性圀(1965, pp. 318~319)에서 作成.

註 : 1) 合計額에 대한 비율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상 몇 가지 특징으로 미루어 이 시기에 전개된 정책은 복지국가적 간섭주의가 아닌 重商主義的 干涉主義였음이 분명하다.⁽¹⁰⁾

1962년만 해도 한국경제는 방대한 遊休勞動力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에 自由黨 말기에 확정된 7개년계획안이나 이를 民主黨정부가 수정한 5개년계획은 모두 노동력과 국내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強調은 공화당정부가 실천에 옮긴 第1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에도 文書上으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궁극적인 진로는 工業化를 통한 產業의 近代化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資本形成이기 때문에 國內貯蓄의 증대와 外資導入에 일차적으로 힘을 기울이기로” 한다는 非人間資本中心的 開發戰略을 가진 공화당정부는 國威宣揚用 大工場建設이라는 정책목표와

(10) 朴正熙 經濟政策의 중상주의적 성격에 관해서는 林鍾哲(1982)을 참조할 것.

는 양립될 수 없는 勞動集約的 技術을 선택할 수는 없었다. 정부는 1961년 8월 29일 鐵鋼工場 건설을 위한 對日借款交渉을 議決하여 8월 30일 經濟企劃院長을 단장으로 하는 차관교섭단을 파견하고 뒤이어 철강·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정부 및 민간경제사절단을 歐美諸國에 파견하였고 안으로는 投資財源으로 동원하기에 충분한 退職貨幣가 있다는 잘못된 現實分析에 입각하여 1962년 6월 10일 貨幣改革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차관획득노력도 크게 성공하지는 못하고 또 화폐개혁을 통한 자본동원노력이 완전히 실패하자 擇一의 수단으로 인플레이션을 통한 強制貯蓄으로 투자재원을 마련코자 하였다.⁽¹¹⁾ 그 결과 國民貯蓄率을 1962년의 3.2%에서 1963~64년에는 평균 8.7%로 크게 할 수 있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커지면서는 逆마진制를 내용으로 하는 高金利政策으로 전환하여 한편으로는 이자율탄력적인 自發的 貯蓄을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도 수습코자 하였다. 또 그 一環으로 限界貯蓄性向이 큰 고소득계층에게 限界所得을 더 많이 분배하는 逆進的 再分配政策을 씀으로써 주어진 所得水準에서 보다 많은 국민저축을 일으키는 정책이 1980년까지 계속 추구되었다.⁽¹²⁾ 그리하여 1966년에는 국민저축률이 11.8%로 史上 처음으로 두 자리수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국민저축규모로는 軍人特有的 成就動機를 공업건설 면에서 만족시켜줄 수 없었고 특히 1961~63년간에 TV, 자동차 등 誇示生産을 위한 방만한 外換管理로 1965년에 外換危機가 顯在化되자⁽¹³⁾ 정부는 서둘러 韓日國交를 정상화시킴으로써 日本經濟力을 한국 경제에 連繫시켜 이를 擔保로 적극적인 外資導入政策을 전개하였고 공업화방향을 輸入代替的인 것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肥料, 시멘트, 精油, 化學纖維, 家電製品 등 1962~66년간에 착공된 것은 모두 比較優位가 아니라 外貨節約能力을 기준으로 건설된 輸入代替産業이고 1963년 7월에 중단되었다가 1966년부터 다시 본격화된 자동차공업은 1968년에 착공된 京釜高速道路와 더불어 대표적인 誇示生産이었던 것이다.⁽¹⁴⁾

(11) 1962~63년간의 도매물가상승률은 평균 27.8%이었다.

(12) 그결과 1961년에 85.2%로 1953년의 84.1% 보다 커졌던 분배국민소득중 노동소득(피용자보수 + 비법인기업소득)이 1980년에는 72.3%로 크게 줄어들었다.

(13) 1961년말 현재 2억 700만달러로 一般輸入規模 대비 200.7%였던 外貨保有高는 1965년 7월에는 1억 1280만달러로 반감되어 그 해 일반수입에 대한 비율은 45.2%로 크게 떨어졌다.

(14) 1966년도 우리나라 人口는 2943만 6천명, 1인당 GNP는 125달러, 따라서 GNP 규모는 36.7억 달러로 자동차공업이 성숙할 수 있는 실버스톤(A. Silberstone) 조건 즉 1인당 GNP 5백달러(당, 1950년대 달러), 人口 5천만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공업이 성숙한 것은 1986년이후이다. 즉 이 해에 자동차생산은 60만 1500대로 1985년(37만 8200대) 보다 59.1%나 커지고 수출도 12만 3100대에서 30만 6400대로 148.9%나 늘었는데 그 해 1인당 GNP는 2207달러, 人口는 4118만 4천명이었다. 실버스톤조건에 대해서는 Maxcy and Silberstone (1959)를 볼 것.

수출에 대한 政策的 強調은 1963년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부 학자는 한국경제를 輸出主導型經濟라고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는 다르다. 이 기간중 투자활동은 電氣, 道路 등 社會間接資本施設 擴充과 수입대체적 중화학공업분야에 집중되었고, 1950년대 말에 이미 輸入代替過程을 끝내고 輸出產業으로 전환한 섬유공업이나 製材工業 또 새로이 수출산업으로 등장한 신발공업, 가발공업 등은 生産基盤擴大보다는 內需犧牲을 통하여 輸出率을 높임으로써 수출증대에 기여하였던 것이다.⁽¹⁵⁾

內需犧牲은 1961년 9월 실시된 報酬統制令 등에 의한 名目貨金抑制과 1963~64년간에 특히 심하였던 인플레이션 등에 의하여 강제되었다. 1962~66년간에 있어 제조업실질임금은 1961년 대비 92.3% 수준으로 인하되었는데 이는 노동자소득, 따라서 그 수요감소를 통하여 貨金財인 경공업제품에 대한 절약을 강제함으로써 경공업제품의 輸出剩餘를 強制的으로 창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貨金費用切下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높혀줌으로써 수출증대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다. 물론 정책당국이 강력한 輸出드라이브를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政府政策意圖로 보나 因果關係로 보나 또 成長寄與率로 보나 이 기간중 수출은 어디까지나 副次的, 手段的, 補助的이었을 뿐 主眼點은 어디까지나 重化學工業 중심으로 輸入代替產業을 건설함으로써 全面的 工業化, 가능한 최대한의 自給自足이라는 閉鎖經濟體制 건설에 있었던 것이다.

1.5. 全面的 工業化(1974~90年)

1974년을 전후하여 한국경제는 국내외적으로 증대한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내적으로는 高度成長原動力이었던 노동력무제한공급이란 조건이 소멸되었고, 이에 더하여 토지공급도 非彈力化하는 반면 국내저축 증대, 外資導入 圓滑化로 자본공급은 탄력화되어 토지, 자본, 노동 등 外延的 成長要素供給比率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동시에 경제활동규모도 커지고 경제구조도 다소 복잡하여져서 원활한 外延的 成長要素供給과 작은 경제규모, 단순한 경제구조에 크게 의존했던 命숨에 의한 調整이 점차 비효율화하고 또 逆機能을 증대시

(15) 1961년에 총 143만 4천 달러로 공업제품수출액중 23.0%를 점했던 중화학공업제품(SITC 5 및 7)은 1973년에는 금액으로는 4억 4441만 7천 달러로 늘었지만 비율을 오히려 16.4%로 줄었다. 이에 반해 경공업제품(SITC 6 및 8) 수출은 479만 5천 달러에서 22억 7280만 2천 달러로 474배나 증가하였다. 한편 1975년 불변가격으로 경공업생산은 1961년의 6164억 6800만원에서 1970년의 2조 1439억 3700만원으로 1조 5274억 6900만원 증대된 데 비하여 중화학공업생산은 2291억 4600만원에서 1조 9383억 9천만원으로 1조 7092억 4400만원이 늘어 같은 기간중 공업생산증가의 52.8%를 차지하였다. 생산액에 대한 수출비율은 製材工業의 경우 1961년의 0.48%에서 1967년에는 28.82%, 1973년에는 52.72%로 커졌고 섬유공업에서는 같은 기간중 0.04%에서 15.51%를 거쳐 37.48%로 커졌다(단 제재공업에 있어 1961년은 SITC 63을 산업분류 331로 나눈 것이고, 1967년 및 1973년은 SITC 63 및 82를 산업분류 33으로 나눈 것이며 섬유공업도 1961년은 SITC 65를 산업분류 321로, 1967년 및 1973년은 SITC 65 및 84를 산업분류 321 및 322로 나눈 것임).

켜갔다.

대외적으로는 世界景氣가 후퇴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연되어 세계수입증가율이 둔화되고 非關稅障壁이 높아지는 등 일반적인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比重이 커짐에 따라,⁽¹⁶⁾ 또 그간 누적된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반발도 커짐에 따라 우리 輸出與件은 특별히 악화되어갔다.

이러한 국내의 환경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려면 命令을 市場으로 대신하고 比較優位産業을 중심으로 合理的 國際分業에 기초한 수출능력을 높이며 再分配政策을 토대로 內需를 크게 하여 수출신장을 위한 국내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처방이 합리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취해진 정책은 대내적으로는 司法波動, 8·3緊急措置, 10·17措處 등 暴力的인 임금억제, 노동탄압, 명령강화 및 多岐化였고 대외적으로는 平價切下, 綜合輸出商社: 創設을 통한 輸出드라이브 강화 및 완전한 자금자축을 위한 중화학공업 건설의 가속화였다.

중화학공업 건설에 대한 관심은 第2次 5個年計劃(1967~71년)에서도 “화학, 철강, 기계 공업을 건설하여 공업고도화기틀을 잡는다”는 특정분야에 대한 強調로 표출되었고 이러한 입장은 第3次 5個年計劃에서는 “중화학공업을 건설하여 공업의 고도화를 기한다”는 일반화된 정책목표로 나타났고 1971~75년간에 해마다 年度別 중점사업으로 강조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는 1972년 12월 이후 蔚山石油化學工業園地內 석유화학공장이 잇달아 준공되고 또 1973년 7월에 종합제철공장이 浦項에서 준공된 다음부터였다. 1973년 5월에는 철강, 화학,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등 6개 戰略産業을 집중개발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한편으로는 ‘중화학공업개발을 위한 外資誘致原則’(1973년 5월), ‘중화학공업개발추진을 위한 長短期內資動員方案’(1973년 6월), ‘중화학공업육성을 위한 企業公開方案’(1973년 8월), ‘국민투자기금운영위원회’ 구성(1973년 9월), ‘중화학공업 등 基幹産業에 대한 租稅減免規制法’ 개정(1973년 10월) 등 資金動員,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틀을 정비하고 다른 한편 ‘중화학공업집중개발을 위한 産業基地開發促進法’(1973년 9월)을 제정하여 제2제철기지(처음에는 洛東江 河口地域, 최종적으로는 光陽), 제2종합화학기지(麗水), 비철금속기지(溫山), 종합기계공업단지(昌原), 대단위조선기지(巨濟), 전자공업기지(龜尾) 등을 건설하였다. 『長期經濟社會發展, 1977~1991』에 開陳된 중화학공업건설구상에 따르면 총 39.3조원으로 예상된 공업부문투자 총액중 70.9%인 27.9조원을 重化學工業에 배정하여 연평균 16.2%씩 중화학공업을 성장시켜 그 비중을 1975년의 45.4%에서 1991년에는

(16) 1955년에 세계수출의 0.02%를 차지하였던 한국수출은 1973년에는 0.61%로 커져 세계 제 32위 수출국이 되었다.

65.1%로 늘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성적인 勞動力不足과 급격히 커져갈 것이 예상되는 科學技術人力 부족에도⁽¹⁷⁾ 불구하고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자족과 전면적 공업화라는 閉鎖經濟指向的 開發이데올로기는 長期發展計劃에서도 견지되고 있었으니 1977~91년을 통하여 연평균 10.5% 성장이 계획된 경공업에 있어 이미 國內要素供給構造와 乖離를 크게 하고 있던 低加工型勞動集約産業인 섬유(계획성장률 9.1%), 피혁(9.5%)과 더불어 素材型勞動集約産業인 목재·가구(13.8%), 製材(11.7%)공업도 지속적 고성장이 계획되고 있다. 또 중화학공업에서도 철강(14.8%), 미철공업부문에 있어 銅(14.3%), 亞鉛(15.6%), 알루미늄·鉛(12.0%), 기계공업중 輸送機械部門에서 자동차(22.4%), 선박(12.8%), 철도차량(13.0%), 항공기 등이, 一般産業機械部門에서 工作기계(25.2%), 기계요소(20.2%), 건설·운반기계, 농업기계, 화학기계, 섬유기계, 重電機(18.8%), 정밀기계, 플랜트 등이, 또 모든 종류의 電子工業(21.5%)과 석유화학, 정밀화학, 펄프와 종이, 窯業 등 化學工業(12.9~14.7%) 그리고 纖維工業이 정책적으로 중점육성되어야 할 공업분야로 지목되고 있다 [韓國開發研究院(1977, pp. 237~356)].

경공업과는 달리 量產利益이 큰 중화학공업은 좁은 국내시장⁽¹⁸⁾만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精油, 肥料, 시멘트 등 국내시장을 상대로 추진되었던 1962~73년의 內需志向的 重化學工業化와는 달리 自動車, 造船, 石油化學 등 1974년 이후 본격화된 중화학공업은 輸出市場을 처음부터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내사정을 보더라도 1962년 이후 계속된 逆進的 再分配政策으로 인하여 內需規模는 GNP 크기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더 작아서 중화학공업성장을 지탱하기에는 너무도 무력하였다. 그 결과 수출은 경공업이 전담하고 중화학공업은 國內市場(=輸入代替)을 주안점으로 건설하되 이에 필요한 투자자금은 輸出과 外資(곧 外國資本 및 技術)導入으로 충당한다는 1962~73년적인 開發戰略은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1974년 이후 추진된 全面的 工業化計劃에서 중점육성된 중화학공업은 1962~73년간에 육성된 중화학공업과는 달리 처음부터 輸出도 담당할 것으로 계획되었다. “內需市場의 절대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무모한 輸入代替를 지양함으로써 모든 생산단

(17) 『長期經濟社會發展, 1977~1991』에서는 우리나라 勞動市場의 특징은 “1980년대 前半을 전환점으로 하여 점차 노동력부족상태로 이행하는 先進國型이 될 것”(p. 194)이고 1977~81년간에 각기 2만 5천명, 7만 5천명, 7만 2천명인 과학기술자, 기술공 및 기능공부족량은 1987~91년에는 20만 1천명(8.0배), 19만 9천명(2.7배), 64만 5천명(9.0배)으로 커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p. 199).

(18) 1974년의 한국 GNP 즉 국내시장규모는 187억달러, 1인당 GNP는 540달러였다.

위가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韓國開發研究院(1977, p. 81)]라는 정책태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重化學工業을 연 16.2%로 육성,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시장만으로는 부족하여 수출시장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지 않으면 안된다. 1991년까지 중화학공업제품수출은 연 23.0%로 기대되고 있다. 이것은 중화학공업제품수출의 성공여부가 우리 工業構造의 고도화는 물론 경제성장의 成敗를 좌우하게 될 것” [韓國開發研究院(1977, p. 100)]인데 “우리가 철강, 금속제품 및 기계류 등의 분야에서 갖게 될 比較優位를 감안할 때 적절한 뒷받침이 있으면 향후 15년간 중화학공업제품중심으로의 수출구조 전환은 무난히 이루어질 것……이며 공산품수출중 중화학공업제품의 비중은 1976년의 36%에서 1986년에는 64%, 1991년에는 74%로 증가할 것” [韓國開發研究院(1977, p. 77)]으로 전망하였다.

이처럼 1974년 이후의 전면적 공업화정책에 있어 무엇보다도 증시된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비교우위가 있는 技能 및 技術集約的 産業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강조된 것은 機械工業과 電子工業이었는데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機械工業중에서는 “자동차, 전기기계, 정밀기계, 플랜트, 조선 등이, 電子工業에서는 통신기기, 電子運用裝置 및 계측기 등의 산업용기와 반도체산업 및 일부 家庭用機器가 전략적인 업종으로 부각되고……이 밖에도 知識集約的인 항공기, 컴퓨터, 정밀화학 등이 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 기대되나 輸出産業으로의 성장은 1980년대 후반에 가서야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韓國開發研究院(1977, p. 100)]고 한 것은 1970년대 이후의 경제환경 속에서 輸出에 의해 주도되는 전면적 공업화전략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1962~73년간에 이룩된 경제성장은 수출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이 通說이다. 그러나 1960년대 경제발전은 경제적 논리로 보나 先後因果關係로 보나 또는 量的 比重으로 보나 輸入代替的(重化學)공업투자에 의하여 주도된 것이다.⁽¹⁹⁾ 그러나 1974년 이후의 경제발전은 전략적으로나 量的 比重으로나 수출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이처럼 1974년 이후 수출이 경제발전을 주도하게 된 것은 輸出이 양적으로도 投資를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 1962년 이후 계속된 逆進的 再分配政策으로 내수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19) 商品輸出構造는 1962년에는 공산품이 27.0%로 1차산품중심이던 것이 1963년에는 51.7%로, 1967년에는 70.1%로, 1973년에는 88.2%로 커졌는데, 이는 1963~66년간에는 인플레이션을 통하여 既存工業生産基盤 위에서 생산되는 工産品을 強制貯蓄케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1967년 이후에는 새로운 투자로 인하여 확충된 생산기반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因果關係로 보아 수출중대보다는 투자중대가 先行된 것이다. 또 量的으로 보더라도 1962~73년간 GNP에 대한 투자비용은 20.5%로 수출비용(=수출의존도) 13.8%를 크게 웃돌고 있다. 다만 1974~90년간에는 양적으로도 국민투자율은 연평균 30.8%로 수출의존도 34.4%를 밀들고 전략적으로도 수출이 內需를 대신하여 투자된 뒤이은 成長主因으로 浮上하였다.

작아진 것, 손쉬운 輸入代替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규모의 경제를 요구하는 본격적 중화학 공업 이외에는 새로운 投資領域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중화학)공업건설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 부문은 국내시장 못지않게 또는 국내시장보다는 오히려 輸出市場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는 것 등의 이유를 들 수 있다. 그리하여 1962~73년간에 연평균 성장률이 26.6%로 경공업성장률(연평균 15.2%)을 1.75배나 앞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률이 계속 저하되어오던 중화학공업은, 1974~89년간에는 연평균성장률이 15.7%로 절대적으로 크게 둔화되고 경공업성장률(연평균 9.8%)에 비해서도 1.6배 성장에 그쳐 그 상대적 성장속도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률은 1974년의 12.1%에서 1987년에는 19.2%로 오히려 계속 높아져 갔다. 이는 같은 기간중 輕工業輸出率이 57.3%에서 55.6%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는 것인데 중화학공업수출률은 商品輸出依存度 즉 국민경제 전체로서의 수출률이 커지는 것보다는 더 빨리 커졌다.⁽²⁰⁾

1.6. 農業政策의 展開(1962~90年)

1962년 이후 정부는 食糧作物 특히 쌀을 중심으로 강력한 增產政策을 전개하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만성적 식량공급부족과 그로 인해 반복되는 穀價波動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잉여농산물도입이 갖는 逆機能에 대해 漸增하는 지식인의 비판 및 농민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價格支持政策을 수반하지 않은 식량증산정책은 오히려 증산에 성공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쌀 過剩生産과 다른 한편으로는 식량자급률 하락과 농촌빈곤을 결과하였다. 농산물의 경우 生産性上昇으로 인한 이익은 적절한 價格支持政策을 결여하였을 때 低價格이란 형태로 모두 소비자에게만 돌아가고 생산자인 농민에게는 窮乏化成長的인 빈곤만 결과한다는 것은 이미 1930년대에 확립된 價格形成原理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비료, 농약, 농가개량·농로확장을 위한 시멘트 등 工業所得源泉인 중간재투입을 증대시키고 耕地面積을 확대하는 등 外延的 成長戰略에 시종하였다. 그 결과 1961년에 ha당 138kg이던 비료투입은 1973년에는 247kg으로, 농약투입은 같은 기간중 ha당 0.5kg에서 23.5kg으로 늘었고(성분 톤) 경지면적은 1968년에는 231만 2천ha로 가장 많아져 1961년 대비 13.7%나 늘었다. 이처럼 농가의 要素費用增大를 수반하는 中間財投入이 늘어난 반면 農家純所得源인 농업노동투입은 반비례적으로 감소하였으니 1962년에 호당 3084.76시간이던 농업노동투입량은 1973년에는 2059.91시간으로 줄었고 농지 ha당 노동투입량도 35.2시간에서 22.5시간으로 크게 줄었다.

(20) 1974~89년간에 商品輸出依存度는 1.43배 증가하여 중화학공업수출률이 1.59배 커진 것에 못미치고 있다.

노동력무제한공급조건이 소멸되기 시작한 1974년을 전후하면서 농업정책당국은 종래의 遞增的 農業中間財(농약 및 비료)投入政策에 추가하여 트랙터, 콤바인 등 값비싼 농업용기계 투입정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여 한편으로는 농기계산업에 대하여 수요를 창조해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기계도입으로 인해 해방되는 농업노동력을 도시로 흡수함으로써 工業勞動力需給不均衡에 따른 工業勞動賃金上昇과 勞動者 및 勞動組合勢力 強化를 저지코자 하였다. 그 결과 1973~90년중에 트랙터는 293대에서 4만 1203대로, 動力移秧機는 44대에서 13만 8405대로, 동력전조기는 730대에서 1만 7749대로, 콤바인은 25대에서 4만 3594대로, 또 바인더는 1977~89년간에 122대에서 5만 5575대로, 走行式噴霧機는 1978~89년간에 769대에서 1만 5330대로 크게 늘었다. 한편 비료 및 농약사용량도 계속 증가하여 1989년에는 ha당 투입량이 각기 458kg과 11.9kg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63년에 전체인구중 56.6%를 차지하던 농가인구, 63.1%를 차지했던 농립수산업취업자비율은 1973년에는 각각 42.9%와 50.0%로 줄었고 1990년에는 15.6%와 18.3%로 감소하였다. 絕對値로 보더라도 농가인구는 1967년의 1607만 8천명에서 1990년에는 666만 1천명으로, 농립수산업취업자는 1976년의 560만 1천명에서 341만 8천명으로 감소하였고, 1989년의 農業勞働量은 호당 1800.43시간으로 격감하였다. 한편 경지면적은 1968년을 피크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73년에는 224만 1천ha, 1990년에는 210만 9천ha로 줄었으며, 식량작물생산과 관련된 耕地利用率도 1965년의 157.8%에서 1973년에는 136.0%로, 다시 1990년에는 113.3%로 줄었다.

이같은 外延的 成長戰略의 결과로 곡물총생산량은 1961년의 566만 6천톤에서 1990년에는 663만 5천톤으로 증가하였고, 그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61.1%에서 84.5%로 높아진 반면 맥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18.4%에서 6.3%로, 기타 곡물의 비중도 10.2%로 크게 줄었다. 반면 1961년에 각기 15만 1천톤과 123만 5천톤이던 果實과 소채생산량은 1990년에는 176만 6천톤과 868만 6천톤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畜産의 경우도 1965~89년간에 肉類는 3.4kg에서 18.1kg, 달걀은 30개에서 167개로, 우유는 0.3kg에서 42.8kg으로 1인당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한편 1인당 곡물생산량은 1962년의 189.8kg에서 1966년에는 236.1kg으로 피크에 이른 후 계속 하락하여 1990년에는 155.0kg으로 줄었고 쌀생산량도 1962년의 113.7kg에서 1977년에는 164.8kg으로 피크에 이른 후 1990년에는 131.0kg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소득증대에 따른 식료품수요구조의 변화로 곡류, 그 중에서도 下級財인 보리 및 기타 잡곡수요가 감소하고 上級財인 소채·과실, 酪農製品 수요가 증가한 때문이다. 그런데 소득증대에 따른 고단백질수요증대는 飼料用穀物輸入을 격증시켜 1961년에 60만 3천톤이던 糧穀導入量

(그 중 57.7%가 밀)은 1973년에는 327만 1천톤(밀·밀가루 183만 5천톤, 옥수수 57만 6천톤), 다시 1990년에는 1122만 9천톤(그 중 밀·밀가루 228만 3천톤, 옥수수 619만 8천톤)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식량자급률도 1962년의 91.0%에서 1990년에는 43.0%로 크게 저하되었다. 소득증대에 따른 수요구조변화는 農業生産構造와 따라서 農家所得構造에도 변화를 일으켰다. 즉 農家粗收入중 농작물수입은 1961년의 86.4%에서 1990년에는 82.3%로 약간 줄고 그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48.6%에서 48.2%로 0.4% 포인트 하락한 데 그친 반면 쌀을 제외한 곡물의 비중은 20.9%에서 6.0%로 크게 줄고 소채·과실·특용작물은 8.6%에서 28.1%로 늘고 있다. 또 農作物外收入중에서는 1961년 養蠶을 합하여 1.5%이던 養畜比率이 1990년에는 養畜 17.5%, 양잠 0.2%로 바뀌고 있다. 主穀 중심의 食糧增産政策은 1990년에 1인당 119.6kg이라는 많은 소비량에도 불구하고 쌀自給率 108.3%란 과잉생산을 결과한채 식량자급률 提高라는 당초부터 실현불가능했던 목표달성에는 실패하였지만 곡물이의 부문에서는 국민의 수요구조변화에 농업생산구조변화가 그런대로 성공적으로 대응하였다.

2. 産業別·段階別로 본 構造變化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日帝下에 건설된 공업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老朽化로 소멸되었고 1950년대에는 미국중심의 外國援助를 재원으로 하여 시멘트, 비료, 板유리 등 일부 基幹産業도 건설되었지만 政治的, 經濟的인 여러 요인으로 섬유, 식품, 목재 등 消費財工業을 중심으로 한 공업건설이 있었다. 그 중 시멘트 등은 1960년대초까지도 국내수요 조차 충족시키지 못하였지만 섬유, 合板, 설탕 등은 1950년대 중엽에는 이미 輸入代替過程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輸出産業으로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1962년 이후에도 工業化基準은 比較優位가 아니라 여전히 外貨節約寄與度였으나 기초적인 소비재산업이 국내시장을 飽和시킨 다음 수출산업으로 성숙한 뒤였으므로 重化學工業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이 기간중 건설된 중화학공업중 화학섬유, 家電機器는 1970년대, 자동차공업은 1980년대까지는 수출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었고 비료, 시멘트공업 역시 수출여력이 있는 산업으로 성숙할 수 있었다.

1974년 이후에는 철강 및 식유관련산업을 중심으로 전면적 重化學工業化가 시도되었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半導體工業을 비롯한 尖端技術産業 건설이 시작되었는데 그 중 1차 철강산업과 조선공업은 수출산업으로 성숙하였지만 機械工業과 석유화학공업은 아직은 輸入代替段階에 있으며 첨단산업은 아직도 幼稚産業으로 머무르고 있다. 이제 건설시기를

기준으로 産業別 成長過程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1. 消費財工業建設期

2.1.1. 製糖工業

제당공업은 1920년 大日本製糖 船橋里工場의 건설·가동으로 시작되었으나 南北分斷으로 해방후 한국에는 제당시설이 全無하였다. 그러던 것이 1953년 第一製糖 건설·가동과 더불어 제당공업이 일어났고 1961년까지는 생산능력이 연산 24만 6천톤으로 커졌고 1989년에는 129만톤으로 커졌으나 제당공업이 제조업에 대하여 갖는 비중은 1963년 현재 생산액기준 1.81%, 부가가치기준 1.45%이던 것이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이 성장함에 따라 1987년에는 그 비중이 각기 0.23%와 0.17%로 크게 하락하였다.

2.1.2. 製粉工業

1919년에 滿洲製粉 鎮南浦工場 건설에서 비롯된 근대적 제분공업은 1939년 현재 12개 공장 施設能力 7천 bbl로 커졌다.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으로 남한의 製粉能力은 거의 全無하다시피 되었으나 1954년에 朝鮮製粉 永登浦工場이 복구됨으로써 시설능력을 2954bbl로 회복될 수 있었다. 그 후 大韓製粉을 비롯 大小 34개 공장이 재건 또는 신설됨으로써 1961년 현재 생산시설은 4만 2721톤으로 늘었고 생산실적도 1954년의 4만 2931톤에서 1961년에는 20만 9102톤으로 증가하였다. 1989년 현재 시설능력은 314만 1천톤으로 크게 늘었지만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액기준 1963년의 2.57%, 부가가치기준 1.42%에서 1987년에는 각각 0.46% 및 0.25%로 작아지고 있다.

2.1.3. 綿織工業

근대적 綿紡織工業은 1922년 朝鮮紡織 釜山工場 건설에서 비롯되며 해방 당시 시설능력은 8個社 10個工場에 紡機 25만 3848杼, 織機 8640대였으며 한국전쟁 직전에는 紡機 31만 6572 추, 직기 9075대로 커졌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방기는 69%, 직기는 63%가 파괴되어 1951년 시설규모는 방기 7만 1146추, 직기 1706대로 줄었다. 전후 재건과정에서 시설능력은 1957년에는 방기 42만 5084추, 직기 9920대로 커져 綿糸 97만 3천달라, 綿織物 27만 6천달라를 수출하게 됨으로써 수출산업으로 성숙하였다. 1989년 현재 방기는 369만 9천추, 직기는 2만 6912대로 크게 늘고 생산량은 면사 54만 6천톤(수출물 65.6%), 면직물 109만 2천 km²(수출물 81.3%)로 늘었지만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은 1963~89년간에 생산액 기준 9.13%에서 1.59%, 부가가치기준 8.38%에서 1.81%로 줄어들었다.

2.1.4. 毛織工業

본격적인 毛織物工業은 1937년에 朝鮮毛織 密陽工場 건설에서 비롯되며 해방 당시 그 시

설능력은 紡機 1990추, 織機 32대였다. 모직물시설은 대부분 워커라인(Walker Line)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어 1961년에는 방기 1만 882추, 직기 416대로 커졌고 다시 1989년에는 방기 113만 9천추, 직기 1906대로 늘었으며 생산량도 毛絲 6만 5천톤(수출률 67.2%), 모직물 6만 6천km²(수출률 43.9%)로 커졌으나 1963~1987년間に 그 제조업에 대한 비중은 생산액기준 2.61%에서 0.66%로, 부가가치기준 2.50%에서 0.79%로 하락하였다.

2.1.5. 合板工業

合板工業은 1954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여 1957년에는 이미 9180만평방ft를 생산하여 485만 9천평방ft를 軍納하였고 다시 1959년에는 생산량이 1억 5896만평방ft로 증가되고 수출이 44만 2천평방ft, 군납이 1323만 9천평방ft에 이르는 輸出産業으로 전환하였다. 合板工業은 그 후에도 계속 성장하여 1978년에는 71억 2300만S/F(4mm 기준)에 달하였다가 쇠퇴하기 시작하여 1989년에는 31억 6500만S/F로 줄어들었고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3~87년間に 생산액기준 1.66%에서 0.36%, 부가가치기준 1.56%에서 0.22%로 줄어들었다.

2.2. 外貨節約的 工業化期

2.2.1. 化學肥料工業

穀物生産増大 특히 主穀自給은 일관된 정책목표였고 시멘트工場 着工(1954년)에 이은 두 번째 重化學工業 프로젝트로 化學肥料工場이 착공된 것(1955년)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忠肥, 湖肥 稼動에도 불구하고 1961년 현재 화학비료자급률은 7.0%에 불과하여 肥料輸入額은 4030만달러에 이르렀다(SITC 2 digit기준, 수입규모 제 2위 품목). 외환부족에 시달리던 정부는 1965년 이후 韓肥, 嶺南化學, 嶺海化學 등 대단위공장을 건설함으로써 1967년에는 생산능력 115만 4400톤, 자급률 101.5%를 실현시켰다. 그러나 1973년 이후 트랙터 등 本格的 農機械普及을 계기로 深耕多肥農法이 보급되면서 비료수요가 급증하여 1973년에는 자급률이 84.6%로 떨어졌다. 그 결과 1974년에 동양최대의 대단위 비료공장인 南海化學이 착공되어 1977년에는 시설능력이 302만 1천톤으로 커져 또 다시 시설과잉으로 稼動率이 떨어져 忠肥, 湖肥 등 3개 공장을 폐쇄하게 되었다. 1963년에 생산액기준 0.91%, 부가가치기준 1.27%이던 비중은 1987년에는 각기 0.49%와 0.26%로 작아졌다.

2.2.2. 精油工業

油類輸入은 1961년 현재 2300만달러로 총수입중 7.3%(제 4위 품목)를 차지하였다. 걸프와 合作하여 日産 3만 5천bbl 精製能力을 가진 蔚山精油工場을 1964년에 준공시킨 정부는 工業化에 따른 油類수요증가에 대비하여 湖南精油(1969년), 京仁에너지(1971년)를 추가건

설하고 蔚山精油施設도 확충하고 다시 極東精油(1978년)와 雙龍精油가 생산에 가담함으로써 1986년 현재 精油能力을 5個社 79단bbl(日産)에 이르러 製品輸入을 原料輸入으로 완전히 代替하게 되었다. 1989년 현재 輸出入比率은 355.4%이고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63년의 생산액기준 0.21%, 부가가치기준 0.17%에서 1987년에는 각기 5.00%와 2.56%로 커졌다.

2.2.3. 化學纖維工業

1959년에 美進化學이 日産 2톤 규모인 PVA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시작된 化學纖維工業은 낮은 섬유소비량과 세 섬유에 대한 嗜好 등으로 급증하는 수요에 대비하여 나일론(1963년 東洋나일론, 日産 2.5톤), 폴리프로필렌(1966년 美進化學, 日産 0.72톤), 비스코스(1966년 興韓化纖 日産 15톤), 아크릴(1967년 韓一合纖, 日産 25톤), 아세테이트(1967년 鮮京化纖, 日産 7.5톤), 폴리에스터(1968년 大韓化纖, 日産 6톤) 등 모든 종류의 化纖生産工場이 건설되어 1969년에는 생산능력이 日産 128.5톤으로 커졌고 다시 1987년에는 合成纖維生産能力이 日産 2504.8톤, 再生纖維生産能力은 131.7톤, 이를 합한 化纖生産能力은 총 2636.5톤으로 성장하였고 輸出入比率은 119.1%(수출 1억 2340만달러, 수입 1억 350만달러)로 커졌지만 原料自給率은 평균 27.6%로 매우 낮다. 제조업에 대한 비중은 1963년의 생산액기준 3.11%, 부가가치기준 2.23%에서 1987년에는 각기 4.17%와 4.23%로 커졌다.

2.2.4. 家電機器工業

가전기기공업은 家庭電子機器인 전기용 라디오가 1958년에 國産化되면서 시작되었고 가정용 電氣機器工業은 1960년에 선풍기생산으로 시작되었다. 통틀어 家電機器工業은 1964년에 制限送電이 없어지고 農村電化促進法(1965년), 電子工業振興法(1969년) 제정에 힘입어 급속히 발전하여 電子機器는 1966년에 TV, 1970년대에는 컬러 TV, 녹음기 등, 1980년대에는 VTR 등으로 그 생산을 다양화하였고 電氣機器는 1965년에 전기냉장고를 생산한 것을 시작으로 1970년대에는 전기세탁기, 전기밥솥 등, 1980년대에는 전자레인지, 몸어어콘 등을 생산하게 되었다.

1985년 현재 자급률은 233.9%, 수출입비율은 1062.8%(수출 30억 8200만달러, 수입 2억 9천만달러)인 수출산업으로 성숙하였지만 國産化率은 컬러 TV 90%, VTR 75%, 전자레인지 85%, 오디오제품 60% 등으로 완전국산화에는 못미치고 있다.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7년 현재 생산액기준 8.75%, 부가가치기준 8.59%이다(산업분류 3832와 3833 합計).

2.2.5. 시멘트工業

시멘트工業은 1950년대부터 基幹産業으로 육성되어 왔고 1962년에는 雙龍洋灰 등 3개 공장이 착공되어 1백만톤의 생산능력이 추가됨으로써 1964년에는 한때 過剩生産現象을 일으켰었다. 그 후 투자활동이 활발해지면서 1966년에는 다시 供給不足으로 反轉되어 1966~69년 간에는 星信洋灰 등 5個社 544만 8천톤, 다시 1970년대에도 아세아시멘트 등 7個社 888만 8천톤의 생산시설이 추가되어 1989년 현재 9個社 37개 kiln, 총 3047만 4천톤으로 시설능력이 커졌다.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3~88년 간에 생산액기준 1.41%에서 0.98%, 부가가치기준 1.96%에서 0.96%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2.2.6. 自動車工業

自動車工業은 자본, 기술, 시장규모 등 需給 모든 면에서 必要條件 [Maxcy and Silberstone (1959)]을 하나도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1962년부터 순전히 國威宣揚을 위한 誇示生産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1962년에 일본 日産自動車로부터 部品을 수입하여 semi-knock-down 方式 組立工場을 건설했던 정부는 1966년에는 豊田自動車와 complete-knock-down 方式에 의한 小型乗用車 생산을 허가했고 같은 해 피아트社 借款으로 아세아自動車 光州工場을 1967년에는 포드社와 技術提携한 現代自動車 蔚山工場을 허용하여 자동차생산을 三元化하였다.

제 2차 석유파동후 小型乗用車에 대한 海外輸入需要가 증가하고 國內의으로도 소득증대에 따른 自動車大衆化(motorization)가 이루어지면서 內需와 수출이 늘고 이에 따라 생산시설도 커져 1983년에 승용차 19만 2천대, 商用車 14만 5천대 합계 33만 7천대이던 시설능력이 1989년에는 각기 148만대와 41만 5천대, 합계 189만 5천대로 급증하고 13.4%이던 수출률도 1989년에는 31.8%로 커졌다.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자동차공업비중은 1963~88년 간에 생산액기준 0.79%에서 6.62%, 부가가치기준 0.86%에서 6.23%로 커졌다.

2.2.7. 鐵鋼工業

철강공업역사는 1918년 日本製鐵이 兼二浦工場을 건설한 데서 시작되며 1944년에는 製銑 63만 1천톤, 製鋼 11만 6천톤의 시설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철강공장은 대부분 북한에 건설되어 1962년 현재 남한의 시설능력은 三和製鐵, 仁川重工業 등 14만 8천톤에 불과하였고 1960년대에 聯合鐵鋼 등이 冷間壓延工場, 中厚板工場 등 16개 철강관련산업에 5070만달러의 차관이 투입되어 1972년까지는 시설능력을 60만 8천톤으로 증가시킬 수 있었다.

1973년에 出鋼量 103만 2천톤 규모의 浦項綜合製鐵이 완공되어 1974년도 철강생산이 227만 4천톤으로 커지면서 철강공업은 本格化되었고 浦鐵의 施設擴充과 光陽製鐵의 1~2期 工事完了로 1989년 현재 설비능력은 製銑 1451만 2천톤, 製鋼 2217만 6천톤으로 커지고 光陽

製鐵 3~4期 工事が 끝나는 1992년까지는 제강능력이 2800만톤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89년 현재 철강재생산은 2175만 6천톤, 內需는 1871만 5천톤으로 자급률은 116.2%이고 수출 644만 8천톤, 수입 340만 7천톤으로 수출입비율은 189.3%가 되어 輸出産業으로 成熟하였다.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3년에는 생산액기준 4.43%, 부가가치기준 2.94%이던 것이 1988년에는 각기 6.85%와 5.92%로 커졌다.

2.2.8. 造船工業

조선공업은 1937년에 조선능력 1만%, 수리능력 1.5만%인 朝鮮重工業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어 해방 당시는 조선능력 1만 9100%, 수리능력 3만 8300%로 커졌고 1971년에는 조선능력이 19만톤이었으나 생산실적은 4.3만톤으로 稼働率 22.6%, 자급률 21.3%이고 그나마 내부분 木造船 건조에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浦項製鐵 稼働으로 原價의 29% 정도를 차지하는 鐵鋼材 국내공급이 가능해지고 對外的으로는 수에즈運河 봉쇄 등으로 인해 船腹量需要가 증대한 것을 계기로 1974년 現代造船 蔚山造船所가 건설된 것을 비롯 大字造船, 三星重工業 등 대형조선회사가 설립되고 造船公社도 시설을 확충하여 1989년 현재 조선능력은 340만%에 달하고 건조실적은 292만 6천톤이었으며 그 중 229만 6천톤이 수출되어 수출률은 78.5%이고 國産化率은 수출선이 60~75%, 國內船은 75~90%이다.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3~87년 간에 생산액기준 0.92%에서 2.31%, 부가가치기준 1.28%에서 2.35%로 커졌다.

2.2.9. 機械工業

(1) 農機械

1962년만 해도 84만 4761대의 耕耘機중 동력경운기는 148대 뿐이었고 1968년에 農業用 트렉터가 생산되기 시작하였지만 농기계 아닌 農器具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73년을 전후하여 한편으로는 노동력무제한공급조건 소멸과 더불어 농업노동력수급불균형이 확대되고 다른 한편으로 綜合製鐵 준공에 따른 鐵鋼關聯産業 活性化로 농업용기계공업도 本軌道에 올라가 1973년부터는 動力移秧機, 動力除草機, 動力乾燥機, 콤팩트 등이 생산되기 시작하였고 1983년부터는 그 중 일부가 수출되기에 이르렀다. 1983년 현재 수출 9020만달러, 수입 2090만달러로 수출입비율은 44.0%, 國産化率은 콤팩트 50%, 이앙기, 바인더가 90%로 아직 성숙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3~87년 간에 생산액기준 0.30%에서 0.35%로 부가가치기준 0.34%에서 0.36%로 약간 커지고 있다.

(2) 産業用機械

1950년대에는 당시의 공업구조를 반영하여 섬유·식품·목재기계의 부품생산 및 수리가,

1960년대에는 에너지增産政策과 관련하여 鑛山・土木機械製作修理가 산업용기계공업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1970년 현재 산업용기계공업자급률은 12.8%, 수출입비율은 1.2%라는 落後相을 보이고 있었다.

綜合製鐵工場 준공에 뒤이은 昌原機械工業團地 造成(1974년)을 계기로 산업용기계공업은 1973~86년간에 연평균 40.8%라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지만 중화학공업용기계는 자급률 56.6%, 수출입비율 25.7%이고 경공업용기계는 자급률 45.0%, 수출입비율 13.4%로서 전체로서의 산업용기계공업자급률은 53.3%, 수출입비율은 21.1%로 輸入代替도 실현시키지 못한 상태이다.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은 1987년 현재 생산액기준 1.25%, 부가가치기준 1.28%이다.

(3) 産業用電子機器

1959년 自動式交換機 생산으로 시작된 산업용전자기기공업은 電子工業振興法(1969년), 技術開發促進法(1972년), 龜尾工業團地 造成(1971년) 등 정부의 적극지원으로 1971년에 자급률 44.2%, 수출입비율 1.7%이던 것이 1989년에는 자급률 70.8%, 수출률 57.3%, 수출입비율 139.1%라는 숫자로 알 수 있듯이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했으며 생산액도 1971년의 1900만달러에서 1989년에는 60억 9700백만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생산구조를 보면 1989년 현재 컴퓨터가 31억 8천만달러로 52.2%, 有線通信機가 17억 5500만달러로 28.8%, 無線通信 및 應用裝置가 6억 4100만달러로 10.5%, 計測機器가 8300만달러로 1.4%, 기타 7.2%이다.

(4) 産業用電氣機器

柱上變壓器, 電壓計 등 제한된 품목만 소량생산했던 산업용전기기기공업은 제 3 차 5개년계획을 계기로 電動機(500kw, 1970년), 發電機(150kw, 1976년), 油入型變壓器(1970년), 차단기(GCB 362kv, 1979년), 개폐기(GIS 362kv, 1980년), 地下鐵用整流器(2500v, 1981년), 發電所用制御盤(1982년) 등이 잇달아 개발·생산되어 생산액은 1976년에 640억원이던 것이 1985년에는 7900억원으로 크게 늘고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5%에서 1.0%로 커졌다.

2.2.10. 石油化學工業

1960년대 후반 PVC, 폴리스티렌 등 생산에서 시작된 석유화학공업은 1972년 나프타分解센터 등 7개 계열공장, 또 1973년에 9개 계열공장을 가진 蔚山石油化學團地가 준공되면서 本格化되었다. 그 후 울산에 12個社 15개 공장이 증설되고 또 年産 35만톤 규모인 대단위 나프타 분해공장을 포함한 9개 계열공장을 가진 麗川石油化學團地가 완공되면서 급성장하게 되었다.

1989년 현재 시설능력은 基礎溜分 114만 1천톤(자급률 64.3%), 誘導品分野에서는 合成樹脂 224만 1천톤(자급률 105.5%), 合纖原料 77만 6천톤(자급률 43.7%), 合成 고무 13만 7천톤(자급률 93.2%)로 3대분야 합계는 315만 4천톤(자급률 78.3%)으로 아직도 완전자급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고 있다. 1988년 현재 석유화학공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액기준 2.85%, 부가가치기준 1.90%이다.

2.2.11. 尖端産業

半導體, 컴퓨터, 自動化機械, 新素材 등 첨단기술산업은 1980년대 중반부터 活性化되기 시작하였고 정부도 '尖端産業發展基盤造成을 위한 臨時措置法'의 제정을 서두르는 한편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신소재산업, 정밀화학산업, 생물산업, 光산업 및 항공기산업을 전략적 신도산업으로 선정하여 이들 첨단산업분야에 1990~94년간 총 15조 3147억원을 투자하여 1994년에는 생산 33.6조원, 내수공급 32.6조원, 수출 15.8조원, 수입 14.8조원으로 완전자급을 실현하려는 첨단산업발전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산업중 가장 먼저 시작된 분야는 1965년 트랜지스터 조립생산을 시작한 半導體産業으로 1980년대 초에 안으로는 정부가 반도체공업육성계획을 수립하여 投資與件 조성에 힘쓰고(1982년) 밖으로는 1983년을 전후하여 세계시장에서 반도체수요가 격증하면서부터 활기를 띠어 1984년에는 64KDRAM, 1985년에는 256KDRAM을 개발하고 그후 1mDRAM, 256KSRAM을 개발하는 등 급속히 발전하여 생산규모도 集積回路生産은 1981~89년간에 3억 4240만달러에서 40억 3910만달러로 연평균 36.3%, 個別素子生産은 1억 6070만달러에서 7억 6040만달러로 연평균 21.4%라는 빠른 성장을 하였다.

1974년에 KIST가 미니컴퓨터 世宗1호를 제작함으로써 시작된 컴퓨터산업은 1982년에 4700만달러였던 컴퓨터 및 周邊機器 생산실적이 1989년에는 本體 생산 17억 5600만달러, 주변기기 생산 14억 2300만달러 합계 31억 7900만달러로 증가하여 內需 18억 5800만달러에 대하여 171.1%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輸出入比率도 수출 20억 2600만달러에 대하여 수입은 9억 3200만달러로 217.4%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輸出入比率은 1984년에 수출 390만달러, 수입 1190만달러로 32.8%이던 것이 1989년에는 수출은 2천만달러로 감소한 반면 수입은 7840만달러로 격증하여 2.6%로 하락하고 있다.

3. 産業構造變化에 대한 巨視的 分析

3.1. 附加價值構成比變化

국민소득이 공식적으로 추계된 최초연도인 1953년에 1차, 2차 및 서비스산업의 비율은

48.6%, 8.9%와 42.5%로 1차>3차>2차산업이라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원조를 주요 財源으로 한 1953~60년간의 공업성장은 2차산업비중을 14.6%로 높였지만 후진적 산업구조는 여전하였다. 산업구조가 1차<2차<3차산업이라는 선진국형을 갖게 되는 것은 1973년부터이며 그 후에는 1차산업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어 1990년에는 10% 수준을 밑돌게 되었다.

1차산업의 상대적 쇠퇴와 제조업을 주축으로 한 2차산업의 成長은 공업부문에 대한 집중 투자와 페티(Petty)법칙에 따른 농업부문으로부터의 노동력이탈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즉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제대로 시작된 첫 해인 1963년에는 産業間就業人口構造가 63.1%, 8.7% 및 28.2%이었는데 1973년에는 1차산업인구가 50.0%를 약간 밑돌게 되고 1986년부터는 2차산업중시자비율보다 작아지기 시작하였다.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4~90년간에 2次産業 年平均成長率은 1차산업성장률을 4배 가량 앞서고 있다.

3.2. 農業生產構造變化

1954~61년간에 연평균 3.64%였던 제 1 차산업성장률은 1962~81년에는 3.14%로, 1982~89년간에는 2.81%로 계속 체감되어 왔다. 그리하여 1954~90년간 성장률이 연평균 3.42%

<表 4> 韓國經濟指標(1953~90년)

	1953	1961	1963	1973	1981	1990
(1) 附加價值構成比						
1 차 산업	48.6	41.4	43.4	26.7	17.8	6.1
2 차 산업(제조업)	8.9(7.7)	14.6(12.6)	16.3(14.7)	23.9(22.7)	26.7(24.8)	29.6(29.2)
서비스 산업	42.5	44.0	40.3	49.4	55.5	61.3
(2) 就業者比率						
1 차 산업	—	—	63.1	50.0	34.2	18.3
2 차 산업(제조업)	—	—	8.7(8.0)	16.3(15.9)	21.3(20.4)	27.3(26.9)
서비스 산업	—	—	28.2	33.7	44.5	54.4
(3) 産業間相對所得指數						
1 차 산업	—	—	100	100	100	100
2 차 산업	—	—	272.4	274.6	240.8	218.0
서비스 산업	—	—	207.8	274.5	239.6	226.6
	1954~61	1962~73	1974~81	1982~90	1962~81	1954~90
(4) 成長率						
1 차 산업	3.64	3.87	3.59	2.06	3.76	3.42
2 차 산업(제조업)	11.10(11.68)	17.28(19.10)	12.29(13.15)	11.74(12.12)	15.28(16.72)	13.52(14.51)
서비스 산업	2.98	10.32	7.30	11.48	9.11	8.36

資料: 統計廳(各年度), 韓國銀行(1984, 1990, 各年度).

라는 농업부문으로서는 보기드문 고도성장을 하였지만 페티법칙의 불가피한 작용으로 1차 산업 부가가치구성비는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3년의 48.6%에서 1990년에는 9.1%로 크게 작아졌다.

1945~61년간의 農業生産力은 비료, 농약 등 농업중간재 공급부족, 한국전쟁으로 인한 농경지 및 관개수로틀 비롯한 농업용사회간접자본의 파괴 등으로 인하여 상승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편 해방과 남북분단, 1·4후퇴 등을 계기로 인구의 사회적 증가가 있어 식량사정은 대단히 좋지 않았다. 1950~61년간의 1인당 곡물생산은 172.7kg, 쌀생산량은 97.2kg에 불과하였고 그 기간을 통하여 수입된 양곡을 합산하더라도 1인당 곡물총공급량은 193.2kg이었다. 이는 1인당 곡물소비량이 피크를 이루었던 1972년의 225.9kg에 비하면 85.5% 수준에 불과하였고 사료용곡물까지 합한 1989년의 총공급량 410.4k에 비하면 47.1% 수준이다.

1950년대 후반을 PL 480호에 의한 원조양곡으로 지내던 정부는 잉여농산물도입이 미치는 농업피해효과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커지고 동시에 미국국제수지 악화 등으로 잉여농산물원조 그 자체도 줄어들자 1962년부터는 重農主義를 내세워 식량자급에 주력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62~73년 간에는 곡물생산은 1인당 223.6kg으로 1950년대 대비 29.5%, 쌀생산량은 123.9kg으로 27.5% 증가하였다. 그러나 소득증대에 따라 수요가 증대되고 또 다양화하였기 때문에 자급률은 오히려 1950~61년의 88.9%에서 81.3%로 하락하였고 곡물생산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도 91.1%에서 55.2%로 줄어들었다.

이에 政府는 식량자급에서 主穀自給으로 정책을 바꾸어 주로 쌀자급에 주력하였다. 그리하여 1974~81년간의 1인당 곡물생산은 202.3kg으로 줄었지만 쌀생산량은 137.5kg으로 늘어 쌀비중은 평균 68.1%로 커졌다. 1인당 쌀공급은 1977년에는 164.9kg에 이르렀는데 이같은 쌀증산은 소득증대에 따라 보리 등 下級財的 곡물에 대한 수요가 줄고 上級財인 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구조변동에도 대응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득증대에 따른 고단백질식물에 대한 수요가 격증하여 주로 사료용으로 쓰인 옥수수수입은 1974년의 57만 3천톤에서 1981년에는 235만 5천톤으로 키쳤고 식량자급률은 64.3%로 하락하였다.

쌀로 수요가 전환되었다고는 하지만 所得增大에 따라 쌀을 비롯한 곡물에 대한 수요감소는 1972년 이후 현저해졌으니 1972년에 양곡 1인당 소비는 225.9kg에 이른 후 꾸준히 감소하여 1990년에는 170.6kg(잠정치)로 작아졌으니 134.5kg이던 쌀소비도 1978년(134.7kg)과 1979년(135.6kg)만 예외적으로 늘었을 뿐 1990년에는 119.6kg(잠정치)로 작아졌다. 이같은 수요구조변화에 대응하여 국내양곡생산도 1982~90년 간에는 170.2kg으로 줄었지만 쌀자급을 고

〈表 5〉 農業生產構造

	1953	1961	1973	1981	1989	1990
(1) 生産指數(1961=100)						
耕 種		100	149.6	193.4	227.2	—
식 량 작 물		100	123.8	133.6	145.0	—
미 곡	74.9	100	121.1	145.5	169.5	—
채 소	89.7	100	245.9	619.9	700.0	—
과 실	73.1	100	437.3	1,061.2	2,182.1	—
특 용 작 물	129.9	100	153.6	179.4	360.9	—
畜 産						
가 축	6.4	100	187.3	477.1	769.9	—
(2) 耕地面積(%)						
곡 물	87.9	92.5	86.0	78.8	—	75.8
채 소	8.0	4.0	8.9	14.0	—	13.1
과 실	1.6	0.8	2.3	3.9	—	5.6
특 용 작 물	2.5	2.7	2.9	3.3	—	5.5
(3) 生産量(%)						
곡 물	79.7	78.5	67.3	44.5	—	41.4
채 소	17.6	16.5	26.5	48.2	—	45.8
과 실	2.5	2.1	5.5	6.6	—	12.2
특 용 작 물	0.2	2.9	0.7	0.4	—	0.6

資料：農林水産部(1990), 農協中央會(各年度).

집하는 政策的 硬直性 때문에 쌀생산은 136.1kg으로 계속 커져 곡물생산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80.0%로 커졌다. 그러나 사료용 및 공업용 곡물수요가 계속 크게 늘어 양곡도입규모는 1989년에는 1023만 2천톤, 17억 4900만달러로 커졌고 자급률도 45.1%로 하락하였다.

重農政策은 이처럼 곡물생산 특히 쌀자급중심으로 農業構造를 개편하고자 전개되었지만 소득증대에 따른 농산물수요구조변화는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과실, 채소 등 곡물보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큰 작물생산을 크게 증가시켰고 또 경지면적이나 생산량에 있어서는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3.3. 工業構造變化

1954~88년을 통한 연평균성장률은 경공업이 12.2%, 중화학공업은 19.7%였다. 단계별로 보면 1962~73년까지는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모두의 성장률이遞增하다가 1974~81년 이후는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輕工業의 경우 가장 비중이 큰 공업은 식료품공업과 섬유공업이었지만 기간별 성장률을 보면 1953~61년간에는 제지공업과 섬유공업의 성장률이 가장 높았고 1962~81년간에는 섬유공업과 피혁공업성장률이 컸으며 1982~88년간에는 피혁공업과 제지공업성장률이 높았다.

〈表 6〉 鑛工業成長率

(單位: %)

	1954~61	1962~73	1973~81	1982~89	1962~81	1954~89
鑛工業成長率	11.16	17.44	12.73	12.19	15.55	13.83
工業成長率	11.68	18.80	13.44	12.59	16.64	14.64
輕工業成長率	11.45	16.20	10.33	7.78	13.85	11.97
重化學工業成長率	18.30	26.63	16.49	13.53	22.57	19.61

資料: 韓國銀行(1984, 1990).

重化學工業의 경우는 화학공업과 기계공업의 비중이 언제나 컸으나 성장률은 1954~61년 간에는 금속공업과 土石工業, 1962~81년 간에는 금속공업과 기계공업, 1982~88년 간에는 기계공업과 토석공업이 컸던 것으로 나타난다.

중화학공업성장률은 1954년 이후 거의 해마다 경공업성장률을 앞섰지만 이는 1953년 이후 경공업 대 중화학공업 비율이 78.9% 대 21.1%로 輕工業이 중화학공업보다 4배 가까이 큰 때문에 생긴 統計現象이다. 실제로 있어 중화학공업비중이 경공업의 그것을 능가한 것은 1979년이었으니 그 해 輕工業과 重化學工業 비율은 47.7% 대 52.3%로 역전되었다.

한편 호프만比率은 1953년에는 4.72 대 1로 消費財 5±1.5 대 資本財 1이라는 공업화 제 1단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1960년에도 4.24 대 1이던 것이 1961년에 3.37 대 1로 소비재 2.5±1 대 자본재 1이라는 공업화 제 2 단계로 넘어가고 있으며, 〈表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3~61년 간의 평균치는 5.18 대 1이다. 따라서 1961년까지는 공업화의 제 1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1962년에 2.96 대 1로 크게 떨어진 호프만比率은 73년에는 1.89 대 1이며 1962~73년간 평균도 2.54 대 1이어서 제 2 단계 중간 정도에 있다고 할 수 있었는데 1972년에 2.84 대 1이던 호프만比率이 1973년에는 1.89 대 1로 크게 작아지고 계속 급격히 하락하여 1981년에는 1.24 대 1이 되고 1974~81년 평균은 1.32 대 1이 되어 消費財 1±0.5 대 資本財 1이라는 공업화 제 3 단계에 있음을 말하여주고 있다. 1982~87년 중에도 工業化는 순조롭게 진전되어

〈表 7〉 工業構造

	1953	1961	1973	1979	1981	1989
輕工業(%)	78.9	73.7	61.2	47.7	48.9	38.7
重化學工業(%)	21.1	26.3	38.8	52.3	51.1	61.3

	1953	1953~61	1962~73	1974~81	1982~87
호프만比率	4.72	5.18	2.54	1.32	0.85

資料: 〈表 6〉과 같음.

1987년의 호프만比率은 0.63 대 1로 오히려 소비재공업보다 자본재공업이 더 커졌지만 1982~87년 평균도 0.85 대 1로서 아직도 1 ± 0.5 대 1이라는 제 3 단계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호프만比率을 기준할 때 1953~87년간의 韓國工業은 공업화 초기단계에서 고도한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3.4. 서비스産業構造變化

서비스산업은 1954~61년간을 통하여 44.8%라는 산업구조상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 내용도 1953년 현재 사회간접자본부문의 비중은 4.2%에 불과하고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비중이 15.0%로 매우 높았다. 이 기간중의 생산력 및 생활수준은 매우 낮아 可用投資資源은 거의 모두 직접적 生産設備에 투입되지 않을 수 없었고 경제활동 그 자체도 美國이 무상제공하는 소비재중심의 援助物資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서비스산업 성장률을 의도적, 정책적으로 높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 결과 1954~61년간의 서비스산업성장률은 연평균 3.55%로 제 1 차산업의 3.64%조차도 밀돌았지만 부문별로 보면 에너지 등 社會間接資本設備를 복구하기 위한 투자활동들을 반영하여 사회간접자본부문성장률은 연평균 11.41%로 금융부문(6.74%)이나 도소매업부문(6.33%)보다는 컸다.

工業化가 급속히 진전되어 에너지, 수송 등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1962~81년간의 서비스산업은 연평균 15.68%라는 高度成長을 하였으며 이 기간중의 서비스산업 성장에 대한 사회간접자본부문기여율은 38.4%에 이르렀다. 그러나 1982년 이후에는 金融部門이 오히려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선도하게 되었으니 이 기간중 금융부문성장률은 연평균 12.69%로 좁은 의미의 사회간접자본부문성장률 11.79%나 전체로서의 서비스산업성장률 10.70%를 앞서고 있다.

그 결과 <表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3년만 해도 서비스산업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이던 에너지, 건설, 운수창고통신업 등 사회간접자본부문비중은 1981년에는 40.6%까지 커졌으나 5共政府가 經濟安定政策에 치중한 나머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한 탓으로 1989년에는 38.9%로 약간 작아지고 4.6%이던 금융부문비중이 꾸준히 커져 28.8%

<表 8> 서비스産業成長率

(單位: %)

	1945~61	1962~73	1974~81	1962~81	1982~89	1954~89
서비스産業	3.55	9.89	6.71	8.63	10.70	8.06
S O C 部門	11.41	18.79	11.01	15.68	11.79	13.81
金融部門	6.74	11.60	12.88	12.11	12.69	11.09
都小賣部門	6.33	12.59	6.54	10.17	10.18	9.34

資料: <表 6>과 같음.

〈表 9〉 서비스産業構造

(單位：%)

	1953	1961	1973	1981	1989
S O C 部 門	5.5	10.3	30.9	40.6	38.9
金 融 部 門	4.6	5.6	17.2	22.5	28.8
都 小 賣 部 門	89.9	84.1	51.9	36.9	32.3

資料：〈表 6〉과 같음.

가 되고 89.9%로 압도적으로 컸던 都小賣業部門比重은 32.3%로 작아졌다. 이로서 라코스트(Y. Lacoste)가 經濟的 後進의 한 척도로 삼았던 上業의 胃擴張現象은 특히 1962~81 년간에 크게 축소되어 서비스산업구조가 公業을 중심한 生産構造와 均衡을 이루게 되었다.

서울大學校 國際經濟學科 教授

151-742 서울 관악구 신림동

전화：(02)880-6392

팩시：(02)880-4454

參 考 文 獻

農林水産部(1990)：『農林水産主要統計』.

農協中央會(1965)：『韓國農政20年史』.

_____ (各年度)：『農業年鑑』.

大統領秘書室(1975)：『韓國經濟의 어제와 오늘——經濟開發計劃의 推進과 成果』.

林鍾哲(1982)：“韓國貿易의 基本性格과 成就”，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經濟論集』21.4.

全國經濟調查機關聯合會朝鮮支部(1942)：『朝鮮經濟年報 昭和16・7年版』.

趙璣濬(1973)：『韓國企業家史』，서울，日新社.

朝鮮銀行調查部(1948)：『朝鮮經濟年報 1948年版』.

統計廳(各年度)：『主要經濟指標』.

韓國銀行(1977)：『物價總覽 1977年版』.

_____ (1984)：『國民所得計定』.

_____ (1990)：『國民計定』.

_____ (各年度)：『經濟統計年報』.

韓國開發研究院(1977)：『長期經濟社會發展 1977~1991』.

洪性固(1965)：『韓國經濟의 資本蓄積過程』，서울，高麗大學校出版部.

黃炳駿(1966) : 『韓國의 工業經濟』, 서울, 高麗大學校出版部.

Adelman, I. ed. (1969) : *Practical Approaches to Development Planning: Korea's Second Five-Year Pla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Maxcy, G. and A. Silberstone (1959) : *The Motor Industry*,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李奎植 博士(韓國開發研究院)의 論評 : 기본적으로 論文의 대상이 일정한 시각에서 歷史的인 사실을 記述한 것으로 별다른 政策的 함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논리적인 관점에서 이론이 있을 여지가 많지 않다. 다만 보충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좀더 明示的으로 다루었으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産業構造의 分析이 전통적인 1次, 2次, 3次産業의 분류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도식에 의한 조감이 우리나라 産業構造의 장래변화과정에 어떤 의미를 시사하는가. 특히 최근 先進國의 産業構造는 정보기술의 혁신적 발달에 의한 情報化가 급진진하여 산업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심지어 산업분류까지도 새롭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한 未來志向의 論義도 앞으로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3次産業 내지 서비스産業의 비중은 계속 증대하여 外觀上으로는 소위 先進國型 産業構造에 접근하여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더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외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과연 우리나라의 3次産業 나아가서는 산업구조 전반이 實質的인 意味에서의 선진국형 구조라고 할 수 있는가.

발표자는 간접적이기는 하나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후 技術水準과 비교우위를 경시한 産業構造政策을 전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비교우위론이란 경제학에서 규범적인 것인지 實證的인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비교우위는 산업별로 결정되기보다는 한 경제사회 전반의 총체적 狀況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단순히 총괄적으로 産業構造分析에 원용할 수는 없을 것이며, 기술수준도 단기간의 도약이 곤란하다고 한다면, 1960년대와 70년대의 産業構造의 급격한 變化를 쉽게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발표자는 産業構造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산업구조의 변화가 産業組織의 側面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동시에 다루었다면 훨씬 풍부하고 흥미로운 결과들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더욱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에 政府政策의 役割이 컸다고 한다면, 그러한 政策의 形成·執行·評價過程과 樣態 및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 등 政策體制(policy regime)에 관하여도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발표자는 1974년 이후 현재까지를 하나의 시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기간은 우리나라 經濟에 있어서 매우 큰 變

革期이므로 과연 이렇게 긴 기간을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姜哲圭 教授(서울市立大)의 論評: 발표자는 114년간의 韓國産業發展事를 年代記의 발전 추이를 요령있게 개관하고 있다. 어떤 계기에 그러한 산업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등을 그때의 사정에 비추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의 문제점은 産業構造를 주로 1次, 2次, 3次産業의 量的인 크기의 분석에 치중함으로써 質的인 변화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데 있다. 즉 이 논문은 케터의 법칙이나 호프만比率의 變化를 기초로 하여 韓國의 産業構造가 1973년을 기점으로 하여 1次産業 < 2次産業 < 3次産業의 선진국형으로 달바꿈하고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 근거중의 하나로 1987년에 호프만比率이 0.67에 이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호프만比率이 先進國 수준이라 하여도 그 내용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産業構造를 質的으로 評價해보면 그것이 왜 무리한 결론인지가 분명하다. 임금과 부가가치를 예로 들어보자. UN統計에 의하면 지난 1986년 현재 한국 製造業勞働者 1人당 時間當賃金은 1.28달러였다. 같은 해 美國의 제조업노동자 1인당 시간당임금은 11.14달러, 일본의 제조업노동자 1인당 시간당임금은 9.31달러였다. 미국과 일본의 제조업 노동자는 같은 1시간을 일했어도 한국의 제조업노동자보다 각각 8.7배와 7.3배를 더 받고 있다.

도대체 이같은 賃金差異가 왜 발생하는가? 한 마디로 말하여 그것은 각국 노동자가 만들어내는 商品의 附加價値가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UN統計에 의하면 1986년 현재 韓國의 제조업노동자는 1시간에 4.87달러의 附加價値를 생산하고 있었다. 반면에 美國의 노동자는 시간당 28.69달러의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日本의 노동자는 25.36달러의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미국노동자는 한국노동자의 6배, 일본노동자는 5배를 생산하고 있다. 附加價値面에서 이 만큼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큰 폭의 賃金格差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 동안 한국의 임금은 크게 올라 1990년에 製造業의 경우 時間當 2.79달러가 되었다. 시간당 임금이 1.28달러에서 2.79달러로 2배 이상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美國과 日本 등 先進國과는 격차가 가마득하다.

이같이 附加價値와 賃金面에서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韓國産業의 技術水準이 先進國型이라고 볼 수가 없는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한국의 技術水準은 組立과 單純加工部門에서만 선진국 수준에 가깝게 발전되었으나 설계, 정밀가공, 소재 및 소재처리 등 초기공정으로 갈수록 기술이 크게 낙후되어 있다. 이것은 섬유, 의류 등 傳

統産業은 물론이고 전기, 전자, 기계 등 거의 全産業에 해당된다. 결국 技術水準, 附加價值, 貨金 등의 質的인 면에서 보면 한국의 산업구조를 선진국화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産業構造를 바르게 평가하기 위하여는 생산공정별, 용도별로 그리고 국제분업구조 속에서 質的으로 分析하는 방법이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문제는 1962~73년의 기간을 輸入代替期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의 통설에 의하면 이 기간은 수출촉진기 혹은 輸出主導型的 成長期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이 期間이 수출은 어디까지나 부차적, 수단적, 보조적이었”고 “가능한 최대한의 自給自足이라는 閉鎖經濟體制 건설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의 진위는 당시의 의지나 주장과는 달리 實積을 놓고 評價하여야 한다. 우선 輸出의 成長寄與率을 보면 1960~65년간은 26%, 1966~73년간은 지난 30년간중 최대인 48%이었다. 1974~79년간과 1981~85년간은 각각 31%, 35%이었다. 따라서 輸出의 成長寄與率로 보면 이 기간은 輸出主導型 成長期이었다. 輸出政策面에서 보아도 이 기간중 수출금융, 환율, 보조금, 조세감면, 감가상각 등 수많은 輸出支援政策이 成案·實施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論理的으로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당시의 정권은 정통성이 결여된 것을 經濟建設에서 만회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했다. 그러나 축적된 자본과 기술이 없었던 당시 상황으로 주로 外資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외자의 元利金償還問題에 봉착하였다. 이를 위한 外換의 마련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輸出드라이브政策을 펴지 않을 수 없었다. 수입대체가 있었다면 수출에 필요한 부문이거나 외환의 절약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 기간은 당시 政策當局이 의도했던 아니했던 輸出主導型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던 狀況이었고 실제 結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